

Aviation Industry

1월 항공 데이터: 계속되는 여객 수요 회복



운송/기계/로보틱스 양승윤_02)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 ✓ 동남아 중심의 노선 증편과 건조한 여객 수요 회복으로 국제 항공 여객은 464 만명 기록
- ✓ 23년 2월 이후 노선 공급 확대 속도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
- ✓ 경쟁 강도 관점에서 단거리&중거리 대비 장거리 노선 매력도 증가 가능성

여객: 동남아와 일본 노선이 이끄는 여객 회복

2023년 1월 국제여객 수는 464만명(+14%mom)을 기록하며 2019년 동월대비 58% 수준을 회복했다. 주요 노선(인천 발착) 별로는 미주 41만명(+2%mom), 유럽 27만명(+5%mom), 일본 91만명(+12%mom), 동남아 154만명(+11%mom), 중국 11만명(35%mom)을 기록했다. 계절적 성수기를 맞이한 동남아 노선(방콕, 다낭, 코타키나발루, 클라크, 보홀 등)에서 증편이 이루어지며 동남아 여객 수는 2019년 동월대비 79% 수준을 회복하였고, 10월 이후 강력한 여행 수요에 힘입어 빠르게 회복 중인 일본 노선의 경우 증편은 소강 상태를 보였으나 수요 강세가 이어지며 2018년 동월 대비 75% 수준에 달하는 여객 수를 기록했다. 전월대비 국제선 여객 수 증감은 FSC와 LCC가 각각 7%와 23% 증가를 기록하며 공격적인 증편에 나선 LCC의 여객 수 증가가 두드러졌다.

2023년 2월 이후 국제선 운항 편수의 증가 폭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1) 이미 주요 LCC(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들의 국제선 운항편수가 2019년 동월 대비 80% 가까이 회복한 상황이며, (2) 여전히 여행비 지출 전망 CSI 등 여행에 대한 건조한 소비 심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향후 여객 수요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도 공존하는 가운데 선 공급 확대에 대한 부담이 존재할 수 있고, (3) 해외 공항의 수용 능력이 여객 회복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지상 조업, 보안 검사 인력 부족).

화물: 비수기+경기 둔화로 인한 수송량 감소

인천공항 항공화물 수송량은 20만톤(-25%yoy, -13%mom)을 기록했다. 노선 별로는 미주 5.0만톤(-32%yoy, -10%mom), 유럽 3.9만톤(-13%yoy, -11%mom), 중국 3.4만톤(-26%yoy, -16%mom), 동남아 3.3만톤(-28%yoy, -10%mom), 일본 1.8만톤(-17%yoy, -21%mom)을 기록했다. 1~2월은 화물 비수기로 2월에도 10% 내외의 추가적인 화물 수송량 감소가 예상된다.

LCC와 FSC의 바통 터치 가능성

이제는 그동안 항공 화물 시장의 시황 악화에 따라 소외되었던 FSC에 재조명이 필요한 시기가 찾아오고 있다. 2분기 이후 여객 수 증가 구간에 진입하게 되는 미주/구주 노선에 강점을 지닌 FSC의 회복 추세에 주목이 필요하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3월 이후 유럽 노선 증편을 준비 중이며, 공격적인 증편보다는 여객 수요에 보조를 맞추는 공급 확대 전략을 유지할 전망으로 효율적인 기재 활용 및 고운임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상적으로 단거리 노선의 수익성이 장거리 대비 뛰어나지만, 여행 수요와 환율/유가 등 매크로 환경이 우호적일 경우, 좌석 공급과 경쟁 강도 관점에서는 장거리 노선도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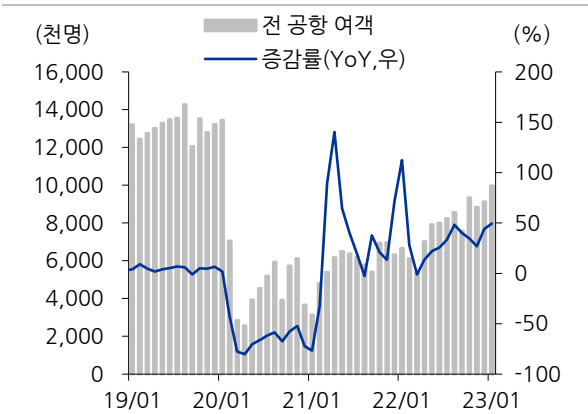
올해 항공사들의 기재 도입/송출 계획은 항공기 제조 시장의 공급망 혼란으로 인해 예측이 어려우나, 항공기 제조 시장에서 생산량이 먼저 회복하고 있는 협동체의 수급이 광동체 대비 원활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퇴역 관점에서는 기령이 23년 이상인 중대형 항공기(A330-200/300과 B777-200/300 등)가 14대에 달해 안전상의 이유로 인한 제한적인 가동 또는 퇴역/반납이 이루어지며 장거리 노선에서의 공급 능력 축소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장거리 노선에서의 경쟁 강도가 단거리&중거리 노선 대비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상황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

도표 1. 전 공항 기준 여객 및 화물 수송실적

(천명, 천톤, %)	구분	Jan-23	yoy	Jan-19	vs19
전체 여객수	전체	9,973	50	13,210	-25
	국제선	4,638	1,185	8,063	-42
	국내선	5,335	-15	5,147	4
	환승여객	481	692	660	-27
국적 대형항공사 여객 (FSCs)	전체	3,289	67	5,088	-35
	국제선	1,452	711	2,950	-51
	국내선	1,838	3	2,138	-14
대한항공	전체	1,903	72	2,842	-33
	국제선	902	717	1,765	-49
	국내선	1,001	1	1,077	-7
아시아나항공	전체	1,387	61	2,246	-38
	국제선	550	701	1,186	-54
	국내선	837	5	1,060	-21
국적 저비용항공사 여객 (LCCs)	전체	5,299	17	5,613	-6
	국제선	1,801	12,653	2,604	-31
	국내선	3,497	-23	3,009	16
제주항공	전체	1,414	16	1,551	-9
	국제선	554	15,932	765	-28
	국내선	861	-30	785	10
진에어	전체	1,205	12	1,016	19
	국제선	432	36,122	556	-22
	국내선	774	-28	460	68
화물 수송	(인천)	203	-25	217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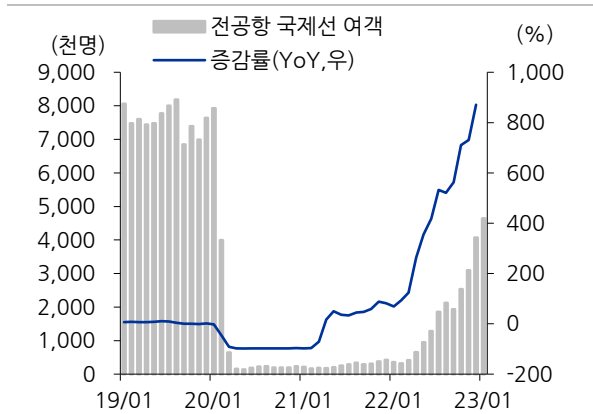
자료: KAC, 인천국제공항공사, 유진투자증권

도표 2. 전 공항 여객 수 및 증감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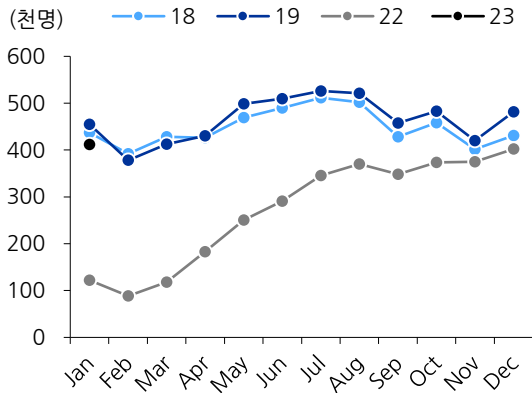
자료: KAC, 인천국제공항공사, 유진투자증권

도표 3. 전 공항 국제선 여객 수 및 증감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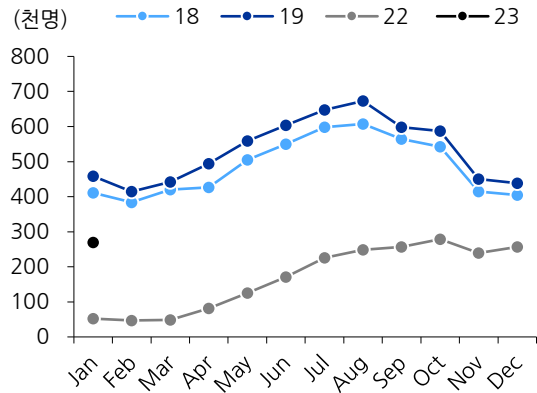
자료: KAC, 인천국제공항공사, 유진투자증권

도표 4. 인천공항 발착 미주 노선 여객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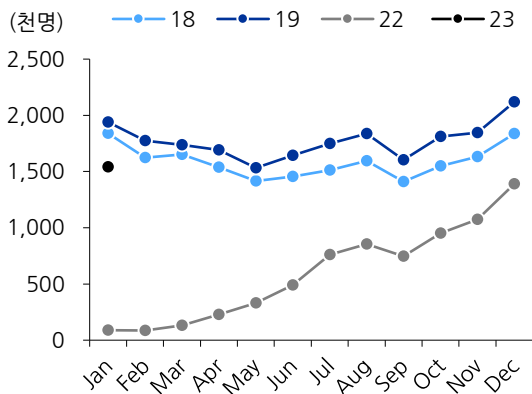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 유진투자증권

도표 5. 인천공항 발착 유럽 노선 여객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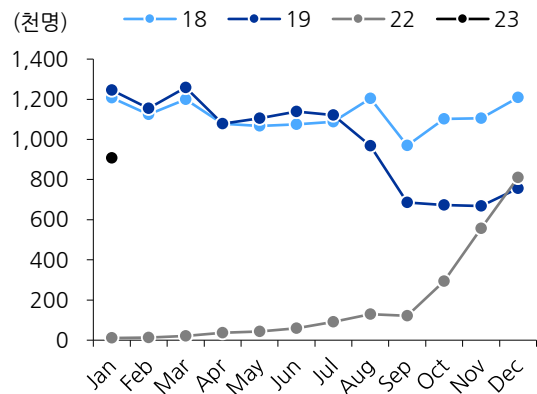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 유진투자증권

도표 6. 인천공항 발착 동남아 노선 여객 수 추이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 유진투자증권

도표 7. 인천공항 발착 일본 노선 여객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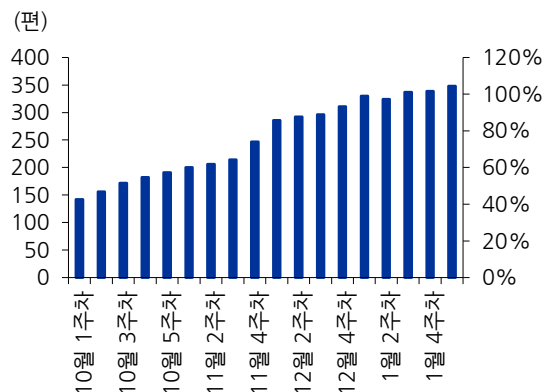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 유진투자증권

도표 8. 인천 발착 제주항공 국제선 운항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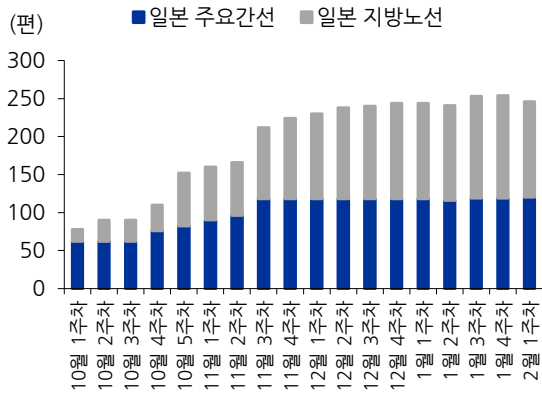
자료: 에어포탈, 유진투자증권

도표 9. 인천 발착 진에어 국제선 운항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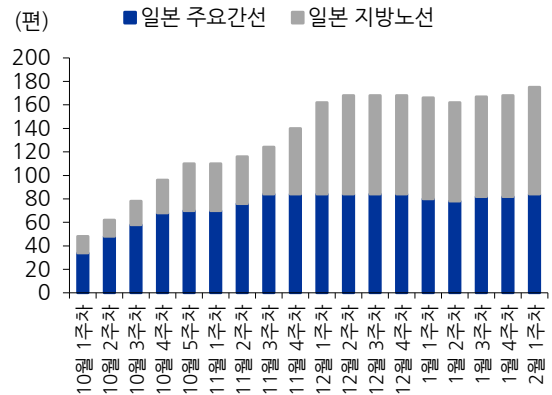
자료: 에어포탈, 유진투자증권

도표 10. 인천 발착 제주항공 일본 노선 운항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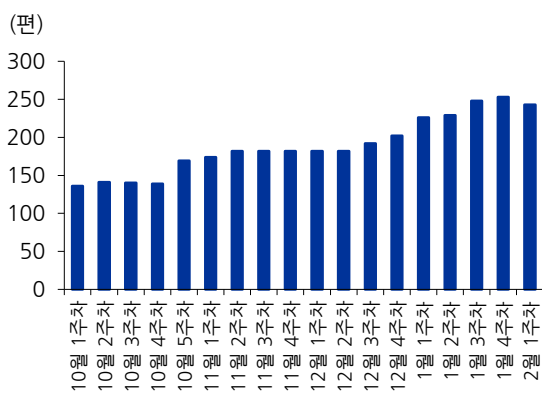
자료: 에어포탈, 유진투자증권

도표 11. 인천 발착 진에어 일본 노선 운항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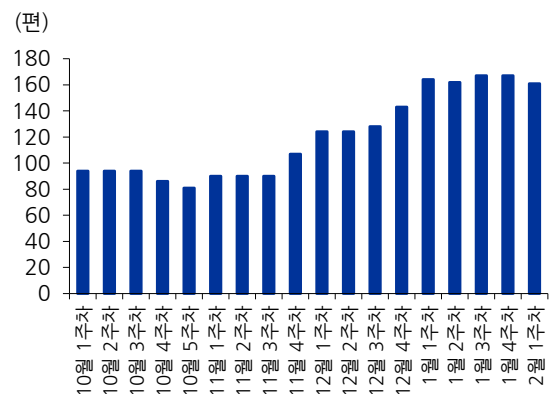
자료: 에어포탈, 유진투자증권

도표 12. 인천 발착 제주항공 동남아 노선 운항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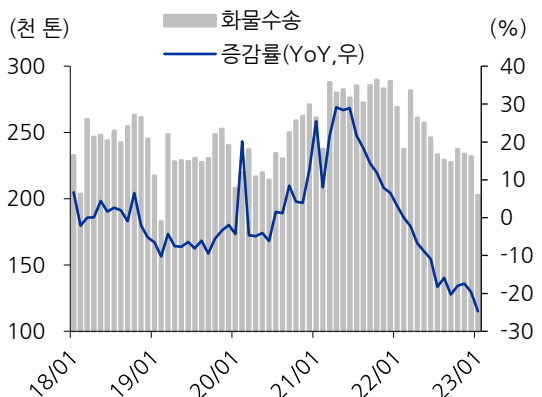
자료: 에어포탈, 유진투자증권

도표 13. 인천 발착 진에어 동남아 노선 운항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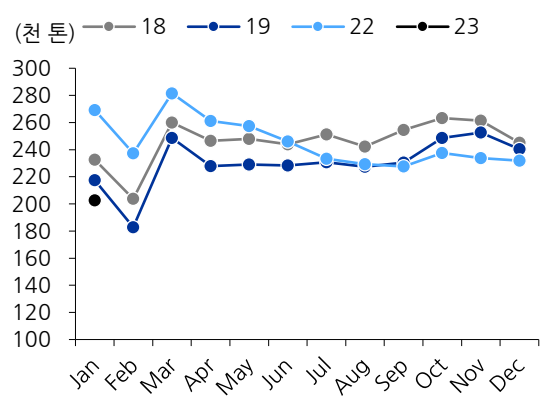
자료: 에어포탈, 유진투자증권

도표 14. 항공화물 수송량 및 증감률 추이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 유진투자증권

도표 15. 항공화물 수송량 월별 추이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 유진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0%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4%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5%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1%

(2022.12.31 기준)